

람사르 습지 생태계 평가 도구 순천서 개발된다

순천만정원 등서 13개국 전문가 참가 내일까지 워크숍

201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서 채택 결의문 제출 예정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시에서 세계 람사르 협약 당사국들이 활용할 습지 생태계 서비스 평가도구가 개발된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호남권 최초 국제 기구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동천하구 일대에서 전세계 람사르 협약 당사국들이 활용할 습지 생태계서비스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부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람사르협약,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비롯한 전세계 13개국 20여명의 전문가, 당사국대표들이 참가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개발된 공식 평가도구의 부재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공식 도구 개발에 합의했으며, 환경부와 순천시의 지원으로 람사르협약 과학기술검토위원으로 활동해 온 영국의 습지전문가 롭 맥이니스(Rob McInnes)박사를 책임담당자로 선임하고 평가도구를 개발중이다.

참가전문가 및 당사국 대표들은 현재 초안으로 개발된 생태계 서비스 평가도구 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계획이며, 순천만, 동천하구 일대에서 이를 직접 적용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다.

완성된 평가도구는 우리나라의 발의로 오는 2018년 개최 예정인 제13차 람사르협

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을 위한 결의문으로 제출될 계획이며, 채택된다면 우리나라 주도로 순천만과 동천하구 일대에서 개발된 람사르협약 공식 평가도구가 전세계에 169개 람사르협약 당사국에 배포 활용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될 람사르 협약 이행도구가 순천시 주도로 개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향후 이 도구가 활용되는 모든 곳에서 순천만을 기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순천 시민들 습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국제적 전문가 롭 맥이니스 박사를 초청해 관련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6~29일 ‘오픈가든 페스티벌’ 개최

매곡동·도사동서 해설이 있는 정원투어 등 행사 다채

정원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순천시 주민주도형 정원축제 ‘오픈가든 페스티벌’이 26일부터 29일까지 순천시 매곡동과 도사동 교량행복마을에서 각각 이틀 동안 개최된다.

‘오픈가든 페스티벌’은 순천시에서 지난 3년간 실시한 ‘오픈가든 투어’를 확대한 것으로, 이웃의 개인정원을 들여다보는 해설이 있는 정원투어와 정원·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매곡동에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정원! 예술을 담다’라는 주제로 기독교 문화 유적이 있는 도심형 정원문화 축제가 열린다. 개인정원 투어를 비롯한 빈 화분에

꽃 심어가기, 도자기 화분 만들기, 야생화 그림 컬러링 체험, 화가가 그려주는 나만의 초상화, 정원미니콘서트, 선착순 1만 100명 무료사진인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도사동 교량행복마을에서는 28~29일 ‘붉은발말뚝게의 정원산책’을 주제로 이 사천이 흐르는 자연 속 한옥마을형 정원 축제가 개최된다.

한옥정원 투어, 공기정화식물로 유리볼 정원 만들기, 꽃 염서 만들기, 갈대 공예, 붉은발말뚝게 천연비누 만들기, 스탬프 투어(천연비누만들기 쿠폰증정), 디탈파로 곡식을 뿔아보기, 전통의상 체험, 전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순천 오픈가든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개인 정원.

통은례 체험, 교량행복마을 사진 콘서트, 먹을거리 장터 등이 운영된다.

한편 이웃의 개인정원을 들여다보는 해설이 있는 정원투어 접수는 정원산업과

(061-749-4873) 또는 매곡동주민센터 (061-749-8333), 도사동주민센터(061-749-836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굵직한 사업들 지역민과 공감대 형성 성과

조충훈 시장 ‘시민과의 대화’ 마무리...민원 150여건 접수

조충훈 순천시장이 민선 6기 시정 성과와 미래발전방향 등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한 ‘2016 시민과의 대화’가 1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달 20일 향동을 시작으로 풍덕동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동안 3500여명 주민이 참석했으며 건의사항도 150여 건에 달했다. 특히 그동안 연례적인 초도순시·연두순시에서 벗어나 조충훈 시장이 직접 시정을 설명하고 시

민들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얻은 주요 성과로는 노후 시청사를 순천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2019년 8월15일 기공식을 갖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이 될 잡월드 유치 등 순천의 미래를 밝힐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점 등이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150여건으로 도로개설·확장·포장



조충훈 순천시장이 최근 삼산동을 방문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등 도로 관련 사항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노선 조정, CCTV설치, 경로당 신설 등 교통, 복지 관련 생활 주변 불편민원도 다수를 차지했다.

조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감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기자 노트

순천시의원들 후안무치한 ‘카드깡’

순천시의회의 의원들이 최근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한 뒤 현금을 나눠 가진 사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처럼 결제를 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나눠 준 혐의로 순천시의회 올해 상반기 예결위원장 A(53)씨 등 의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98만5000원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소속 시의원들에게 7만원씩 나눠준 혐의다. A의원은 이후 ‘카드깡’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전액 회수해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원의 비위는 이것뿐이 아니라는 데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2014~2016년 상·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뒤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만~10만원씩을 나눠줬다.

이들 의원들이 ‘카드깡’으로 받은 돈은 5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은 일부 시의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자존심마저 상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의 대표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몇만원씩 나눠먹은 행태가 시정잡배(市井雜輩)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김은종
사회2부 기자

순천시민단체는 순천시의회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발표, 윤리강령 조례 준수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최근 임종기 의장 명의의 ‘사과문’ 형식의 보도자료 한장으로 마무리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되려 형세인 의회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중한 책임과 함께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이들 의원들은 요즘 경찰의 수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아직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 자신들을 바라보는 순천시민의 따가운 시선과 악화된 여론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순천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선거 운동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이자,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에게 공개사과를 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순천만정원 을 관람객 400만명 돌파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 관람객 400만명 돌파에 이어 500만명 이상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25일 “지난 20일 기준 올해 순천만국가정원을관람객이 400만명을 돌파



했다”고 밝혔다. 이번 400만명 돌파는 사상 유례없는 여름철 폭염으로 여름 시즌 관람객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1주일 정도 늦어졌지만, 지난 16일 폐막한 ‘2016 순천만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의 성공에 힘입어 300만명 돌파 후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순천시는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관람객 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행운의 주인공과 25명의 관람객을 꽃장식 관

차에 태우고 국가정원을 돌아보는 기념 행진을 벌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관람객을 모으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을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을 야간경관 이벤트를 구성 중”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은 올해도 순조롭게 관람객 500만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백운동 1-1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